

# 대학생의 신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교 연구

김 미 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sup>1)</sup>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신체 장애인수는 선천적, 후천적 신체 장애 인구를 포함시켜 150~45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체장애인구 비율은 1995년에 비해 0.13%가 증가한 숫자이다.

특히, 신체장애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선천적 장애인구 비율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변화 현상에 따른 교통사고, 산업재해, 안전사고 등으로 비롯된 후천적 장애인구 비율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sup>1)</sup>. 특히, 신체적 장애인은 그 기능이 장애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 즉, 움직임, 거동, 안전관리 대처 능력 등의 제한을 가지게 되며, 더욱이 신체 장애인은 어느 한 부분의 기능적 제한점에 의해 갑작스런 재해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제한되어 있다<sup>2,3)</sup>. 또한, 응급상황이나 재해, 안전사고 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신속한 대비와 올바른 응급처치나 이송 등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신체 장애인은 비호의적이며 부정적인 대상이라는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 장애인에 대한 정신심리적 영향이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국한시켜 다루어져 오고 있으며<sup>4-6)</sup>, 신체장애인의 안전사고 관리나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의료 구조 활동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신체 장애인들의 신체적 장애 특성이나 취약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의 변화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응급 상황시 신체 장애인들의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파악하여 철저한 구조 활동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일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 조사해 보고자하며, 이로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신체 장애인들의 신체적 장애 특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는 바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일반학과 학생과 비교해 보

\* 가천의과학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겸임교수

고자하며,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와 응급의료처치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3. 용어정의

#### 1) 인식과 태도

인식과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정서적 반응으로, 어떤 준거 혹은 인지 대상에 대해 사고하고, 느끼고, 인식하여 취하고 나타내는 행동을 태도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태도란 Lazer, Bonett and Granaff<sup>5)</sup>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연구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대학생의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각정도에 대한 이해,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에 대한 이해,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항목을 각 변인별 6개 문항씩 총 36개 문항에 의해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 2) 신체장애인

신체적으로 일부분의 기능이 제한되어진 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기능 제한을 가지고 있는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모두를 의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신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는 인천시에 위치한 G대학 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

중 1학년 80명, 2학년 80명과 일반학과 학생 중 1학년 75명, 2학년 75명을 임의 표집 하였다. 일반학과 학생은 국어국문학 전공 등의 학생들이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였으며, 질문지는 2004년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주간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응급구조학과 학생 중 각각 63부와 60부를, 일반학과 학생 중 각각 62부와 66부로 총 251부를 회수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도구는 Lazer, Bonett and Granaff<sup>5)</sup>가 제작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도구로서 6개의 영역별 변인으로 6개 문항씩 총 36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로 작성하였다. 수정 보완된 연구도구는 1차 응급구조학과 교수 2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후, 응급구조학과 학생 5인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수정 보완 한 후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의 질문내용은 대학생의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모두 여섯 개의 영역별 변인으로서,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각정도에 대한 이해,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에 대한 이해,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신체 장애인에 대한 태도영역은 .98,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각정도에 대한 태도영역은 .98,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에 대한 태도영역은 .99,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에 대

한 태도영역은 .96,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영역은 .98,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영역은 .99이다.

###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연구의 도구는 신체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여섯 가지 영역별 변인에 따라 각 하위 6개 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와 ‘아니오’ 난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각 영역별 0에서 6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측면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하위 영역별 문항에 대한 점수는 신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을 경우 1점을 주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어 하위 6개 영역별 6문항씩 각 점수의 합계를 내었다.

6개 영역별로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일반학과 학생 간 점수의 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그 값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wo-Sample t-test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응급구조학과

학생 그룹과 일반학과 학생의 학년 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Two-Way ANOVA 분산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도구의 신뢰도는 KR-20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자료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251명이었으며 모두 여대생이었다. 대상자 중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1학년 63명, 2학년 60명과, 일반학과 학생은 1학년 62명, 2학년 66명이었다<표 1>.

종교는 기독교(88.9%), 천주교, 불교, 무교 순이며, 연령분포는 대부분이 20대이며, 30대 1명과 40대 7명이었다. 이 중 3,40대 대상자는 산업체 특별전형 대상자들이다.

가족원 중 신체 장애인이 ‘있다 또는 없다’에서는 ‘있다’가 5명, ‘없다’가 246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중 신체 장애인이 있는 5명의 신체 장애정도는 경증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 일반적 특성

(n = 251)

		응급구조학과		일반학과		Total
		1년n(%)	2년n(%)	1년n(%)	2년n(%)	
성 별	여성	63(25.2)	60(24.0)	62(24.4)	66(26.4)	251(100)
	종 교	기독교	53(84.1)	49(81.7)	59(95.2)	62(93.9)
	불교	2( 3.2)	3( 5.0)	0( 0.0)	0( 0.0)	5(1.9)
	천주교	5( 7.9)	8(13.3)	1( 1.6)	4( 6.1)	18( 7.3)
	무	3( 4.8)	0( 0.0)	2( 3.2)	0( 0.0)	5( 1.9)
연 령	20-25세	59(93.7)	54(90.0)	53(85.5)	49(74.2)	215(85.7)
	26-30세	4( 6.3)	6(10.0)	7(11.3)	11(16.7)	28(11.2)
	31-35세			0( 0.0)	1( 1.5)	1( 0.4)
	36-40세			0( 0.0)	0( 0.0)	0( 0.0)
	41-45세			2( 3.2)	3( 4.5)	5( 1.9)
	46-50세			0( 0.0)	2( 3.1)	2( 0.8)
가족 중 신체장애인	있다	2( 3.2)	1( 1.7)	1( 1.6)	1( 1.5)	5( 1.6)
	없다	61(96.8)	59(98.3)	61(98.4)	65(98.5)	247(98.4)
장애인 에 대한 경험	있다	34(53.9)	48(80.8)	29(46.8)	62(93.9)	173(68.9)
	없다	29(46.1)	12(19.2)	33(53.2)	4( 6.1)	78(31.1)

가족 외 신체 장애인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 또는 없다'에서는 '있다'가 173명, '없다'가 78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외 신체 장애인과 접촉한 경험은 대부분 병원이나 의료센터 등 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 2.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일반학과 학생의 학과별에 따른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신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대하여 여섯 가지 변인별로 구분하고, 이것을 응급구조학과 학생(이하 Group 1)과 일반학과 학생(이하 Group 2)으로 구분하여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2>.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에 대한 태도영역의 평균이 Group 1은 8과 Group 2는 4, 안전관리와 지각정도를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Group 1은 6과 Group 2는 6,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Group 1은 5와 Group 2는 3,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에서 Group 1은 2와 Group 2는 8, 안전관리와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Group 1은 5와 Group 2는 7, 안전관리와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Group 1은 7과 Group 2는 6으로 나타났다.

Group 1에서는 2개의 영역 즉,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과 신체 장애인에 대한 안전관리와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태도 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Group 2에서는 4개의 영역 즉, 안전관리와 지각정도를 이해하는 태도,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을 이해하는 태도,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와 안전관리와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태도 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체 장애인에 대한 영역별 태도에서는 Group 2가 Group 1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좀으로서 일반학과 학생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보다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 측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Group 1은 22이며 Group 2는 21로 나타나 Group 2보다 Group 1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변인별 태도에 대하여 Group 1과 Group 2의 두 집단 간 평균 차에 대한 t-test에서 두 Group 모두 안전관리와 지각정도에 대한 이해영역과 안전관리와 사회생활 이해 영역에서는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안전관리와 작업능력 이해에서는 매우 유의하였다. 안전관리와 학교생활 이해 영역과 안전관리와 가정생활 이해영역에서는

<표 2>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일반학과 학생의 학과별에 따른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n = 251)

	Group	N	M	SD	t	p
지각에 대한 정도	Group 1	123	2.566	1.575	3.79	.0002
	Group 2	128	1.866	1.291		
작업능력	Group 1	123	4.975	.918	4.36	< .0001
	Group 2	128	4.793	.858		
사회생활	Group 1	123	3.572	.848	3.22	.0015
	Group 2	128	2.868	.811		
학교생활	Group 1	123	3.655	1.385	1.41	.1608
	Group 2	128	3.497	1.117		
가정생활	Group 1	123	3.697	.898	0.64	.5202
	Group 2	128	3.866	.864		
장애인에 대한 느낌	Group 1	123	4.188	.938	5.03	< .0001
	Group 2	128	4.774	.557		
전 체	Group 1	123	22.653	3.169	1.84	.0001
	Group 2	128	21.664	3.098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0001로 .01 유의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Group 1과 Group 2간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년 간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태도

여섯 개의 변인별에 대한 학년 간 수용태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지각정도를 이해하는 태도영역에서의 평균이 1학년에서는 2.695와 2학년에서는 1.773,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각각 4.975와 4.793,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각각 2.898과 3.354, 안전관리와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각각 3.762와 3.962, 안전관리와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각각 3.218과 3.933,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에 대한 태도에서는 각각 4.032와 4.929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와 지각정도를 이해하는 영역과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을 이해하는 2개의 영역에서 1학년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4개의 영역은

2학년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학년에서는 21.565와 2학년에서는 22.774로서 1학년생에 비하여 2학년생들이 좀 더 신체 장애인들의 안전관리 측면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각 변인별 긍정적 태도에 대한 학년 간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에 대한 t-test에서는 안전관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영역과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에 대한 태도에 대한 2개의 영역에서는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네 가지 영역에서는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0001로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어 학년 간 신체장애인의 안전관리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인별 각 집단 간 변량분석

신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인별 학과와 학년 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표 3> 학년 간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태도 (n = 251)

영역	학년	N	M	SD	t	p
지각에 대한 정도	1년	125	2.695	.904	3.98	.0001
	2년	126	1.773	1.082		
작업능력	1년	125	4.975	1.021	0.64	.5209
	2년	126	4.793	1.041		
사회생활	1년	125	2.898	1.087	3.23	.0015
	2년	126	3.354	.873		
학교생활	1년	125	3.762	.371	1.40	.1631
	2년	126	3.962	.197		
가정생활	1년	125	3.218	1.964	4.38	.0001
	2년	126	3.933	.981		
장애인에 대한 느낌	1년	125	4.032	.097	4.43	.0001
	2년	126	4.929	1.096		
전체	1년	125	21.565	5.048	2.209	.0001
	2년	126	22.744	5.207		

<표 4>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인별 각 집단 간 변량분석

(n = 251)

영역	Source	df	Mean Square	F-value	p-value
지각에 대한 정도	Dept. X Grade	1	.050	.05	.8264
작업능력	Dept. X Grade	1	.003	.00	.9544
사회생활	Dept. X Grade	1	4.512	5.03	.0256
학교생활	Dept. X Grade	1	.800	.69	.4052
가정생활	Dept. X Grade	1	.012	.02	.8998
장애인에 대한 느낌	Dept. X Grade	1	2.812	2.06	.0419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지각정도를 이해하는 태도영역에 대한 평균은 1학년에서는 2.695와 2학년에서는 1.773,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각각 4.975와 4.793,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각각 2.898과 3.354, 안전관리와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각각 3.762와 3.962, 안전관리와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에서는 각각 3.218과 3.933,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에 대한 태도영역에서는 각각 4.032와 4.929로 나타났다. 신체 장애인의 지각정도를 이해하는 영역과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을 이해하는 2개의 영역에서 1학년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4개의 영역은 2학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1학년은 21.565와 2학년은 22.774로서 1학년생에 비하여 2학년생이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서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가 학년 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변인별 긍정적 태도에 대한 학년 간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에 대한 t-test에서는 안전관리와 학교생활 이해와 안전관리와 작업능력 이해에 대한 2개의 영역에서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4개의 영역에서는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지각정도를 이해하는 태도영역에서 p-값이 .8264,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을 이해하는 태도영역에서 .9544, 안전관리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에서 .0256, 안전관리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에서 .4052, 안

전관리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에서 .8998,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에 대한 태도영역에서 .419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7957로 나타났다.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과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에 대한 2개의 태도영역은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의 태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과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에 대한 태도영역에서 Group간과 학년 간에 어느 한 집단이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지면 다른 집단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신체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여섯 가지 변인별로 구분한 응급구조학과와 일반학과 학생에 대한 결과, 즉 응급구조과인 그룹 1에서는 2개의 영역인 장애인의 안전관리와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와 장애인에 대한 느낌 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학과인 그룹 2에서는 4개의 영역 즉, 자아를 이해하는 태도, 작업능력을 이해하는 태도,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와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태도 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응급구조학과 보다 일반학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태도에 관한 연구<sup>7)</sup>와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일반아

동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아 부모와 특수교사 보다는 일반아 부모와 일반교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더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인 연구결과<sup>8-10)</sup>와 같은 의미하고 할 수 있겠다. Voeltz<sup>11)</sup>에 의하면 장애아 동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아동이 접촉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신지체 또래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sup>9,12)</sup>에서는 정신지체아와 실제로 접촉한 경험이 있는 아동보다 접촉경험이 없는 아동에서 수용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년 간 수용태도에 대한 결과로서, 지각에 대한 정도와 안전관리와 작업능력을 이해하는 2개의 영역은 1학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4개의 영역은 2학년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학년에서는 21.565와 2학년에서는 22.774로서 1학년생에 비하여 2학년생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태도에 관한 연구<sup>7)</sup>에서는 일반아 부모와 장애아 부모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일반아 교사와 장애아 교사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sup>5)</sup>에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15)</sup>.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인별 학과와 학년간 각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과 장애인에 대한 느낌 등 2개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응급구조학과이면서 2학년인 경우 안전관리와 사회생활 영역과 장애인에 대한 느낌 영역에서 좀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을 수강한 여학생 집단에서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의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sup>5)</sup>, 장애아 부모와 특수교사 집단에서 사회생활

을 이해하는 태도영역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sup>7,15)</sup>.

또한 일반아동의 장애체험이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sup>16)</sup>에서 장애체험은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인식적인 측면과 행동적 의도 측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oeltz<sup>11)</sup>에 의하면 장애아동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아동이 접촉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인과 접촉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장애학생들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sup>5,9,17)</sup> 보고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장애인들의 낮은 학업수행능력, 밖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장애, 부적절한 행동, 방어적인 행동 등이 원인이 되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일반인들이 지닌 변인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 접촉경험,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이 장애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sup>5,9)</sup>.

개인에게 있어서 장애의 의미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를 가진 어떤 한 개인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위험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는 사회적인 안전관리망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장애인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많은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의료행위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교과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신체 장애인이란 신체적 원인에 의해 영속적이거나 일시적으로 그 기능이 장애를 받고 있어 일상생

활이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전국의 신체 장애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신체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적 변화 현상에 따른 만성질환자에 의한 신체장애 인구의 증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장애와 신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신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질적, 양적, 행정적 그리고 사회 복지적인 측면의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체 장애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기능 장애에 의해 안전 사고에 대처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며, 또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과 이를 위한 연구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 장애인에 대한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일반학과 학생의 신체 장애인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로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 하여금 신체장애인 역시 응급 의료대상자임을 인식시키고 좀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응급의료인으로 신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 수 있는 태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일반학과 학생의 신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인천시에 위치한 G대학 학생 중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일반학과 학생을 임의표집 하였으며, 총 251명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도구는 LBG(1973)가 제작한 것으로, 측정도구의 질문내용은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하여 모두 여섯 개의 영역별 변인으로, 각 변인별 6개 문항씩 총 36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영역별 문항에 대한 점수는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을 경우 1점을 주어 하위 6개 영역별 6문항씩 각 점수의 합계를 내었다. 또

한 Group 1과 Group 2의 학년 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Two-way ANOVA 분산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 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별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 태도에 대한 결과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일반학과 학생에 비교하여 2개의 태도영역 즉, 안전관리와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과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에 대한 태도영역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학년 간 수용태도에 대한 결과에서, 2학년 학생은 1학년 학생에 비교하여 4개의 태도영역 즉,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 안전관리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 안전관리와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에 대한 태도영역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학과와 학년 간 각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에서, 안전관리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태도영역과 신체 장애인에 대한 느낌에 대한 태도영역에서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였다. 즉, Group간과 학년 간에 어느 한 집단이 긍정적 태도가 높아지면 다른 집단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신체 장애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교과과정을 통해 신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그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 대책과 응급의료처치 제공시 요구되는 시행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교과과정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2. Ralston, Elizabeth et al: Physician's Attitude and Beliefs about Deaf Patients, *The J of the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 9(3), 167-173, 1996.
3. 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전문응급처치학, 대학서림, 2000.
4. 김미희: 신체장애인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체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질적연구학회지, 4(1), 76-87, 2003.
5. 이철원: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수용태도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8(2), 59-71, 2000.
6. 김광분: 한국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장애인 가족, 친지 반응 연구. 발달장애학회지, 29, 102-120, 1997.
7. 오일창: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태도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8. 국미경: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비교, 우석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9. 이부민: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0. 이충일, 황부근: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습관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 체육학회지, 5(1), 61-74, 1997.
11. Voeltz L. M.: Children's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Peers, *A J of Mental Deficiency*, 84(5), 455-464, 1998.
12. 최승희: 특수학급 장애아동의 또래망과 일반아동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 회복학회지, 4(1), 327-359, 1999.
13. Barbara Weiserbs and Jay Gottlieb : The Effect of Perceived Duration of Physical Disability on Attitudes of School Children Toward Friendship and Help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34(3), 343-355, 2000.
14. Lazar, A. L., Bonett, B. M. and Granaff, F. M.: Changes in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physically handicapped, *Exceptional children*, 39, 219-229, 1997.
15. 홍승미: 초등학교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16. 문영호: 일반아동의 장애체험이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7. 김삼성: 인형극을 통한 장애인식 증진의 효과, 발달장애학회지, 3, 99-111, 1997.
18. Hoare et al: A Community survey of children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ir families; psychological adjustment, carer distress and the effect of respite care, *J of Intellectual Research*, 42(3), 218-227, 1998.

=Abstract=

## Comparative Study on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person of University Students

Mi-Hee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supply basic information and positive attitude needed to understand the disabled person through the analysing EMT Dept. student reaction on the disabled perso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51 students from G-college in In-Cheon City. The subjects were separated as the EMT dept. students and general dept student.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ere Lazer. Bonett and Granaff(1973). The scale of attitude on the disabled person. Data were analyzed by use of two-sample t-test and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AS program.

Results are as follows ;

1. Frist, the EMT Dept. students showed more positive and optimistic attitude on the disabled person as safety prevention with their family life and safety prevention with first impression, but the general dept. student showed more positive and optimistic attitude on the disabled person as safety prevention with their self-consciousness, safety prevention with operative capacity, safety prevention with social life and safety prevention with school life.
2. Second, on attitude of 1 or 2 grade, first grade showed more positive and optimistic attitude on the disabled person as safety prevention with self-consciousness and safety prevention with operative capacity. Second grade showed more positive and optimistic attitude on the disabled person as safety prevention with social life, safety prevention with family life and safety prevention with school life. and first impression. But disabled person as safety prevention with self-consciousness, safety prevention with operative capacity, safety prevention with social life, safety prevention with school life and first impression.
3. Third, in interrelation effect analysing each section department and grade. They showed and interrelated more positive and optimistic attitude on the disabled person as safety prevention with their social life and first impression.

As a resul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disabled person whose physical condition.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s to need to endeavor safety prevention for disabled person.

**Key Words :** Attitudes, Disabled person

---

\*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